

“원형보존 최선...성역화 해야”

연재 순서

- ① 총론
-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 ③ 남산 훼손실태
-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 ⑥ 남산으로 떠나자



마애선각육존불

이호신 작 삼릉굴 마애선각육존불. 남산성역화대 보존의 유일한 대인이다.

남산이 지닌 불교적·역사문화적 가치는 지대하다. 금오봉과 고위봉 자락에서 흘러 내린 40여개의 계곡에 115곳의 절터, 87구의 불상, 71기의 석탑, 13기의 향로, 보물 지방문화재 등 35점의 문화재가 집중된 곳

특별기획

경주남산 재조명

은 유일하다. 불교신앙의 원형이 간직된 곳이다. 또 유물유적의 성립시기도 6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러 약 4백여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밝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주남산이 국립공원과 사적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곳이라는 사실도 전혀 의아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관리와 보존의 기본자료가 되는 내방객수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3명의 인원(청소원 6명, 관리인 7명)으로는 104km에 40여개 계곡으로 이루어진 전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속철 우회 안심못해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으론 본래의 생명을 잃고 결도습만 화려하게 치장된 경주의 다른 곳과 달리 관심권밖에 머물러 원형의 훼손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관리부재의 틈을 타 각종 유물유적의 인형훼손, 산림훼손, 불법분묘의 설치, 무분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남산이 지닌 문화유적의 가치를 훼손할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가 남산을 빗겨간다면 1천3백여년의 조상들의 신앙

돌하나에도 조상의 숨결... “개발 행정에 불안”

공단·불법분묘·산림훼손 사전억제책 절실

과 예술 삶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남산의 파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경주도심동과를 막았지만 아직 남산은 안살할 단계는 아니다.

“남산을 꼭 떼어내어 서울의 종로에 옮겨놓으면 남산일 수 없듯이, 남산 주변에 남산의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것도 또한 남산일 수 없습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 신경준 홍보부장의 지적이다.

남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같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 회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도 아니다. 문화유적의 보고라는 점에서 국립공원과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남산만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유일의 사적(史蹟) 국립공원이다.

남산의 석불 석탑은 인공조형물이면서

도 남산과 절묘하게 어울리도록 조형되어 있다. 자연바위를 석탑의 기반으로 삼아 세운 것이라든가, 부처님 머리 부분은 선명하게 돌을세움하면서도 하체는 선으로 처리한 마애석불은 최소한의 인공으로 신앙심과 예술성을 표현해 자연과의 친화성을 극도로 드러낸 걸작이다. 따라서 주변환경이 반 남산적인 것으로 둘러싸인다면 남산

의 가치를 사라지고만다. 남산사당모임 김덕수 회장은 인근의 울산지역 공단이 남산주변에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남산은 그 면모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산에 포함되면서도 자연경관 보존지구에서 제외된 동남쪽의 각종 공단에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울산은 평당 토지가격이 200만원에 이르는데 이곳은 9만원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남산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 지적에는 개발논리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립공원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과 2호 장경각이 있는 해인사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권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 계획 대부분은 지방재정 수익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주남산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남산은 불교의 성지이다. ‘겨레의 땅 불자의 땅’이다. 지난 89년 결성, 4차에 걸쳐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대회가 치뤄졌다. 당시의 성역화결사 결의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남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답변을 담고 있다. “우리는 경주남산의 불적이 겨레의 가장 성스러운 자산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유기되어짐으로써 그 존귀한 가치가 침식되어 민족적 문화유산의 손실은 물론 우리 불자들의 신앙심에 오욕의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에 성역화 결사를 펼쳐 신앙의 구심점으로서 민족정

신의 뿌리로써 봉헌코자 한다.” 당시 성역화결사본부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형준씨(불자사 대표)는 “20여 불교단체가 모여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본부를 구성하고 △불지의 연구와 조사, 파손된 불상과 탑 사찰의 복원 △매년 3월3일과 9월 9일을 경주남산 순례의 날로 정하고 불자들의 합동순례 실시했다”며 “오래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남산성역화는 지금도 남산보호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손에게 부끄러워셔야

3월3일은 신라 총담스님이 남산 삼화령에서 부처님게 차공양을 바친 날을 기념한 대례행사로, 이후 부처님마을과 신라문화원 등 경주의 남산보호단체들이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매년 병행해오고 있다.

윤경렬 선생은 남산의 보호방안에 대해 “현재 상태로 보존이 최선”이라며 “원형복원이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연구성과와 조정 능력으로 또는 돈이 없어서 이만쯤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남산은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조사가 선행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인류의 보배를 만든 조상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야 어찌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경주=정성운 기자

시론

딸가진 어머니의 불안

며칠 전 보도된 세 어린 소녀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타락한 성도덕, 극심한 이기주의, 성차별 등등의 총체적 사회문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그 나이 또래의 여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어린 학생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가슴아프다.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웠을까... 피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무관심과 방치가 잔인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없고 죄스럽다.

우리사회 어디로 가고있나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수업중 출산한 여중생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동시에, 10대의 문란한 성도덕과 학교교육의 부족 등을 지적함으로써 무분별한 10대를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법학)

개탄하고 성교육의 부실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치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바빠졌다. 학교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에 성교육과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과목을 신설하거나 현재 체육시간에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시간을 늘리고, 또 성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자료를 전국 각급 학교에 무상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을 열고 있다. 물론 학교성교육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학교에서 성교육을 잘 시킨다고 성폭력 피해여성이 줄어들고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대증요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정부 교육의 안이한 자세와 문제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언론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공격성, 폭력성이 생물학적, 생리적 근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하고, 다수의 범죄학자들 역시 폭력범죄의 원인이 유전적 원인보다는 환경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한다. 전문가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폭력환경이 폭력범죄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폭력환경부터 척결해야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워 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말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사회복지나 하지만 항상 말 뿐이고 일과성이고 전사적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환경을 척결하고, 퇴폐향락산업을 규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성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도 법의 보호 밖에 버려져서는 안되며,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권리, 성폭력의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창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산은 ‘겨레의 땅 불자의 땅’이다. 그러나 개발의 논리에 남산은 불안하다. (91년 4월 열린 제4차 경주남산 성역화 결사대회)

一鵬門徒會 召集公告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6월 25일 은사스님의 입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원했던 은제자 문도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하였으나, 황망중에 정담도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은제자 문도들은 흩어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은사님의 크신 생전의 원력과 유지를 바르게 봉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법왕청(일봉선원)에서 1965년도에 출발한 일봉문도회(은제자와 그 직계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를 하오니 개개인에게 통지하지 못하고 지면으로 공고하게 된 사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은제자 및 그 직계제자 문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1996년 7월 15일(음6·30)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법왕청(일봉선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우스님(02-379-2635)과 동성스님(02-736-258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1996). 7. 5.

일봉문도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

대표 정관 습쟁

聲 明 書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신 일봉 서경보 대종사님께서 지난 6월 25일 입적하시므로 세계불교법왕청 회원국 22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불교도가 일봉 큰스님의 업적을 애도하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 영결식과 다비식을 봉행하였으며, 일봉 큰스님은 영롱한 법신사리, 100과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불교법왕청 한국본부에서는 전통불교의식에 따른 49재를 엄히 봉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불교법왕청은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 일봉 큰스님의 49재 이후 합법적인 수순절차에 따라 한국 본부의 입장을 밝힐예정입니다.

그러나 작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초대법왕 일봉서경보 스님의 업적을 기화로 2대법왕을 추대한다고 운위하면서, 일부언론에 까지 보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전에 성자처럼 깨끗한 정진력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신 일봉 큰스님의 悟道的 삶을 차마 욕되게 하는 작태 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한국불교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불교법왕청은 금번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사태가 세계불교법왕청과는 전혀 무관함을 전세계 불교도 및 우리나라 사부대중에게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 당사자들은 僧伽의인 양심에 따라 참회를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자중할 것을 통보하며 만약 改悔의 정이없이 동 성명서를 외면하고 무지한 작태를 계속할 시에는 부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0(1996). 7. 8.

세 계 불 교 법 왕 청

한국사우국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5-5호(낙원빌딩503호) 전화(02-745-1590)/팩스(742-1590)
스리랑카사우국 : 70-plrivena road, Mt-Lavimiam SRILANKA tel 593902, fax 593901

공동 사무총장 김 광 태 (한 국)
공동 사무총장 위 풀라사라 (스리랑카)